

“조공” 개념 연구

전재성(서울대학교)

I. 서론

19세기 중후반 동아시아가 유럽의 근대주권국가체제로 개편되기 이전,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독특한 기반 위에 있었다. 대부분의 정치단위들이 왕조였으며, 서구와는 달리 주권적 평등의 원칙을 창출하기 보다는 위계적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원 왕조가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아시아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다양한 유목민족 왕조들의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중국의 왕조들은 동아시아가 자신의 통치 하에 있었다고 역사를 기술해왔다. 중원왕조가 천하의 중심이고 동아시아는 동심원 구조를 이루면서 주변이 중앙의 속국 혹은 번국으로 충성하는 위계구조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중원왕조의 통일된 지배하에 정통으로 연결된 단일한 위계상태였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다양한 왕조들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들 간의 경쟁은 때로는 군사적 정복으로, 때로는 문화적 경쟁으로 표출되었다.

중국 중심의 전통질서관은 현재의 학계에서도 통용되고 있다. 페어뱅크가 제시한 조공체계론은 중국의 왕조를 중심에 놓고 긴밀한 제도를 통해 연결된 단일한 위계질서를 상정하고 있다(Fairbank 1968, 1953, 1942). 대략 14세기 전후에 완비된 조공질서는 명청왕조를 축으로 주변의 왕조들을 복속시키고 체계적인 사대, 자소의 질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21세기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이 유지해온 전통 지역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관점들이 등장했다. 특히 서구의 신청사론은 중국 중심시각을 비판하면서 각축하는 왕조들 간의 경쟁 속에서 변화된 지역질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왔다(Hevia 2005).

동아시아 전통지역질서의 핵심 개념은 천하, 사대, 자소, 조공 등이다. 천하는 단일한 정치지리를 상정하는 정치적 개념이며, 사대자소는 중심과 주변, 문명과 야만, 중화와 이적을 나누는 이원적 질서의 규범적 철학이다. 상호 간의 책임과 권한을 상정하여 동아시아 단위들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정한 개념이다. 사대자소를 매개한 실제적인 제도의 기반은 조공이다. 조공은 朝覲과 貢物을 합친 개념으로 군신 간의 정치적, 경제적 상호작용의 축이었다(전재성 2012)

중국의 연구자들은 조공체계가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있었으며 정치적으로 군신관계가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중국 주변의 단위들은 중원왕조에 충성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으며, 공물을 바치고 회사의 형태로 답례를 받았다고 본다. 그러나 조공의 실천이 정치적 주종관계를 실제로 실현하고 있는가는 당연시하기 보다는 본격적으로 탐구해볼 주제이다. 사대자소는 이념적 외피로서 개념적으로 구체적인 현상을 가리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공을 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실행했는가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이다.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 시각을 비판하는 서구와 동아시아의 학자들은 조공의 물리적, 이념적 기초가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조공의 다양한 측면을 밝힘으로써 동아시아 질서의 기본 조직원리도 밝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조공 개념을 개념사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조공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보는 시각을 새롭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조공의 개념적 기원을 밝히고, 한중관계사 속에서 조공의 의미가 각 시대의 정치적 맥락 속에

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II. 이론적 시각과 주요 질문들

동아시아 전통질서를 보는 이론적 시각은 일원적이고 제도화된 중국 중심 시각인 페어벵크의 조공체제론, 보편적 제국의 힘의 논리가 사실상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신청사론, 문명과 문화에 의한 구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용희의 사대관계론 등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중요한 점은 서로 상이한 작동방식이 어떠한 변수들에 의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각 시대별 특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로써 과연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질서와 어떻게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전통 지역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왕조와 중원 왕조의 관계를 시대별로 특징짓는 특징도 이와 연결되어 있다.

첫째, 지정학, 지경학, 지문학적 특징으로 중원의 압도적 위치를 들 수 있다. 동아시아는 지리적, 인문적 특성으로 중원의 비대칭적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주변 이민족들의 문명적 후진성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원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여 안정적 패권체제를 이룰 경우, 동아시아 질서 역시 안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북방 유목 민족이 농경 중원의 문명적 요소들, 특히 군사적 기술의 발전을 수입하거나 스스로 정치적, 군사적 힘을 비축하여 중원을 공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전쟁으로 인한 지역질서의 변화로서, 군사적 세력균형의 변화를 지역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앞서 논의한 바 거대 중원 대 분산 이민족, 농경 대 유목의 구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군사력의 균형이 변화되면 기존의 지역질서가 무너진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환경의 경우, 한반도 왕조들이 스스로 중원을 군사적으로 공격한 예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만주지역과 몽고지역의 유목민족이 군사적 힘을 비축하여 중원을 공격하게 되면 한반도와 중원 왕조도 이에 영향을 받아 관계가 상당 부분 변화하게 된다.

셋째, 중원왕조의 문화적, 문명적 힘으로 주로 유교 문명의 영향이다. 중원왕조가 상당 기간 안정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문화적 자원을 축적하면 주변 왕조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집합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유대가 형성되고 왕조들의 핵심 엘리트 간 인적 관계가 형성되는 한편, 조공을 통해 공물의 교환이 경제적 의미를 더 크게 가지게 되어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양자, 다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송나라 이후 중국의 성리학이 강력한 문화적 자원으로 등장하면서 주변 왕조와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변을 보였다.

넷째, 동아시아 정치단위들은 제국적 특성, 혹은 위계적 조직원리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왕조 간 관계 역시 위계적 특징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구의 경우 제국들 간의 세력균형이 제국들의 주권성으로 연결되어 결국 영토국가들 간의 주권적 평등이라는 규범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우 제국들 간에 공존과 안정의 상태가 주권적 평등이라는 새로운 조직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 위계적 조직원리가 무정부상태 조직원리로 변환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중원의 과도한 비대성, 유목 왕조들의 불안정성, 그리고 왕조 내 조직원리가 민주주의로 변환되지 못했던 점 등으로 추정된다. 전국시대 중원의 복수 단위들 간 관계를 근대 유럽의 국제정치와 비교하기는 하지만, 결국 진나라의 통일로 귀결되고 7웅 간의 주권적 평등이 규범적으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행위적 공통점은 가지지만 조직원리 상의 공통점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요인들, 변수들을 고려해 볼 때,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몇 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진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유형 1: 중원왕조의 단일 위계 상태

중원왕조가 강력한 군사적, 문화적 힘을 보유하고 정비된 조공 체제를 유지할 때, 페어벵크의 조공체제와 이용희의 문명사대론의 모습이 부각된다. 중원왕조의 힘이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 확산되는 것은 대략 당나라 이후이므로, 당나라 전반기, 북송 전반기, 원나라, 명나라 전반기와 청조의 시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주변 왕조들은 중원왕조의 정당성을 보고 정치적, 문화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불안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전자의 경우 사대자소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조공 체제를 존중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교 혹은 유교에 기반한 문화적 동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원나라와 청나라가 후자의 경우로서 고려와 조선은 원나라의 직접 통치, 청의 명 정복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독립 혹은 북벌을 내세워 문화적 복속은 되지 않았다. 중원왕조가 군사력에 기반한 이민족 왕조로서 전체적인 안정성은 확보되었지만 문화적 중화의 중심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형 2: 복수의 위계/천하 간의 평화적 공존, 독자적 위계 영역 존중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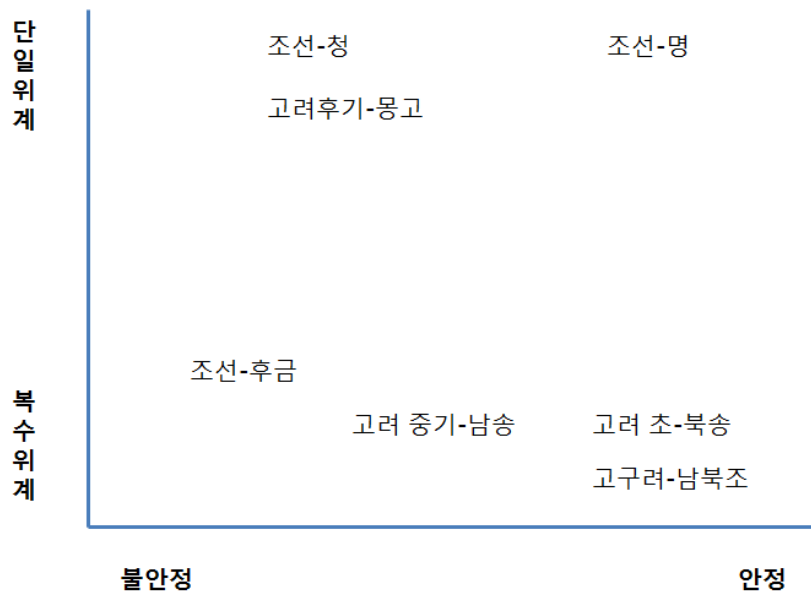
중원 왕조가 내부적 응집성은 유지하지만 주변의 왕조들에 비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지 못할 때, 군사적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상황이다. 이때 각 왕조들은 자신의 영토가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있다는 관념적 천하론을 주창하지만 실질적으로 패권적 힘이 부족함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다른 왕조들의 천하를 실질적으로 존중하면서 이념적으로 독자적이며 배타적 천하를 주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때의 조공은 각자의 독자적 위계를 존중하는 외교적 행위이며, 군사적 균형이 유지되는 한 안정적 조공체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남북조 시대 북조와 고구려, 북송과 고려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유형 3: 군사력 중심의 왕조 간 경쟁, 전쟁 상태

중원왕조가 군사적으로 취약해져 문화적, 경제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원이 이민족에게 침략당하여 정복되거나, 혹은 지속적인 전쟁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민족 왕조들은 군사력을 급속히 증진시켜 힘의 불균등 발전을 이룩하고, 중원을 차지하여 스스로 천하를 이룩하려고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성공하는 이민족 왕조와 실패하는 왕조가 등장하는데 이 기간에는 왕조 간 치열한 군사적 전쟁상태가 이루어지고 세력균형의 논리에 의해 동맹과 경쟁이 빈발한다. 한반도와 중원 왕조 역시 만주와 몽고 지역의 이민족 왕조가 등장하여 중원을 공략하는가, 이 과정에서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다. 남송대 요, 금, 원의 등장과 치열한 전쟁상태, 후금의 등장으로 인한 명청 교체기가 이에 해당되며, 고려와 조선은 이 시기에 생존을 보장하면서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라 기민한 대처를 추구했다. 조

공관계의 주종이 단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조공은 생존을 지키기 위한 충성의 정치적 상징의 모습을 강하게 띠게 된다.

이상의 유형을 단일위계-복수위계, 그리고 지역질서의 안정성-불안정성에 따라 나누어 보고, 한중관계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공은 이러한 각 유형의 지역질서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 글의 목적 상 조공이라는 실천, 관례와 관련하여 묻는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왕조에서 기원한 조공이 중원 내의 단위들 간에 행해질 때와, 중원과 외부 단위들 간에 행해질 때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가?
- ② 조공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 전쟁과 직접 지배는 조공과 다른 상호작용의 형태이므로 과연 조공은 얼마나 일반적인 관계 유형이었는가?
- ③ 조공의 방향은 중원 왕조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는가, 혹은 경우에 따라 역방향, 혹은 쌍방향으로 진행되었는가?
- ④ 조공은 단일한 상위 단위에 행해졌는가, 혹은 복수의 단위에 대해 동시적 조공이 행해질 수 있었는가?
- ⑤ 조공의 방향성과 내용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들은 무엇이었는가? 물리적 힘에 기반한 세력균형이 중요했는가, 혹은 문화적 우월성과 같은 이념적, 관념적 변수들이 작용했는가?
- ⑥ 조공의 다양한 실천을 통해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조직원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기존의 이론적 시각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III. 조공의 기원: 중원의 제도의 확산과 전파

조공의 개념과 관례는 중원 왕조에서 시원하여 점차 이민족을 포함하는 제도로 자리잡았다. 조공은 천하를 하나의 정치지리적 단위로 보는 세계관에서 비롯되었고, 이민족은 중원의 정치지형이 확장되면서 중원의 정치질서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이민족 스스로가 지역질서를 개념화하고 투사할 때 점차 중원의 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천하의 단일적 질서를 유지하는 조공의 관례는 이민족 중심의 위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조공의 개념은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상고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원의 약소 부족들은 전쟁에서 강대부족에게 복속되는 경우 정치적 상징으로 강대부족의 제사를 받들고, 충성을 약속하면서 공물을 바쳤다. 하 왕조와 은 왕조에서도 이러한 관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조공이 제도화된 것은 주왕조로 볼 수 있다. 은 왕조는 이전의 방, 읍, 국 등 성읍국가들이 은왕을 추대하여 방국연맹을 만들어 세운 왕조이다. 반면 주 왕조는 주왕실을 창건하여 왕실의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후들을 분봉, 배치하였는데 이것이 분봉제도로 굳어지게 된다. 은, 주 왕조는 왕을 정점으로 내복(內服)과 외복(外服)으로 구성되는데 내복은 은, 주왕의 직접통치를, 외복은 간접통치를 받는 구성이었다(이춘식 2003)

조공이 행해지려면 다스리는 정치공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필요한데, 주 왕조는 천자를 정점으로, 9주, 9복, 9기, 5복의 봉건제도를 정비하여 천하일국의 봉건적 세계국가를 정착시켰다. 이 제도는 상서, 시경, 순자, 주례, 예기 등에 기록되어 있고 공자와 맹자에도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서술이 나온다. 조공에 대한 기사가 많이 발견되는 상서의 우공편은 대체로 춘추 말기, 혹은 전국 초기에 편찬된 것으로 분석되고, 순자는 전국 말기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주례의 상당 부분은 전국 시대에 편찬되고, 예기도 전국시대에 정리된 것으로 본다. 상서》우공편은 대체로 춘추 말기 내지 전국 초기에 편찬된 것으로 보고 <순자>는 전국 말기에 편찬되었다. 그리고 《주례》중의 상당 부분은 전국 시대에 편찬되고 《예기》역시 전국 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禹)는 땅을 9주로 나누었는데, 기주, 연주, 청주, 서주, 양주, 형주, 예주, 양주, 웅주이다. (상서, 요전, 우공편, 7)

또한 주례를 보면,

9복의 방국을 나누어 사방 천리 지역을 왕기라 하고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후복,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전복 또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남북, 또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채복, 또 그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위복, 또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만복, 또 그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이복, 또 그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진복 또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번복이라고 하였다. (주례, 하관, 직방씨)

결국 천하는 왕기(王畿)를 중심으로 후복, 전복, 남북, 채복, 위복, 만복, 이복, 진복, 번복의 9복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주공이 태명을 이루자 천하를 9기로 나누어 정하고 하 임금 우 임금 때의 옛 제도를 회복하였다.

이에 천하를 9기로 나누어 그 내용기록을 가지고 각 나라에서 천자를 받드는 청사의 직무를 시행한다. 방 천리를 국기라고 하며 그 외 방 5백 리를 후기라고 하며 그 외 방 5백 리를 전기라고 하며 그 외 방 5백 리를 남기라고 하며 그 외 방 5백 리를 채기라고 하며 그 외 방 5백 리를 위기라고 하며 그 외 방 5백 리를 만기라고 하며 그 외 방 5백 리를 이기라고 하며 그 외 방 5백 리를 진기라고 하며 그 외 방 5백 리를 번기라고 한다. (시경, 국풍)

이후 5복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5복을 이루어 오천리에 이르렀고 12주에 주장인 사(師) 12명을 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彌成五服至予五千州十有二師, 상서, 우서, 익직) 여기서 오복은 순 임금 때에 실행한 것으로 전복, 후복, 수복, 요복, 황복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원 단위들 간의 관계와 중원 및 주변, 즉, 중원이 야만이라고 불렀던 주변 민족과의 관계이다. 왕기를 중심으로 한 9복 중에 중앙의 후복, 전복, 남북, 채복, 위복은 황제 아래 제후국들의 지역이고, 주변의 만복, 이복, 번복은 이적과 만이의 제후국이었다. 우임금 때의 5복 역시 중앙의 전복, 후복, 수복은 제후국이고 주변의 요복과 황복은 오랑개의 제후국으로 구별하고 있다. 결국 9주를 제외하고 모두 황제 이하의 내부의 제후국과 오랑개의 제후국으로 양분하여 다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황제의 군사력과 행정력이 상시적으로 오랑개 지역에 미치고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중국은 정치적 공간을 자신 중심으로 동심원에 의해 상상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서주가 약화되고 춘추전국시대가 되면서 정치단위가 극도로 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춘추시대 말기에 이르면 120개가 넘는 제후국이 출현하고 전국 시대에 많은 전쟁과 병합과정을 거치면서 7개국으로 압축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화가 동시에 출현하는데, 수공업의 발전, 농업생산기술의 발전,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상업네트워크의 전개 등, 농업사회의 변화가 초래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봉건제를 통한 통치가 더 어려워지고 조공의 네트워크도 복잡다단해지며, 전국시대의 투쟁 속에서 이민족이 중원의 정치에 끼어드는 사례가 늘어난다. 따라서 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조공이 점차 이민족을 포함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일반화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전국시대의 갈등과 경쟁은 결국 진나라 건국으로 다시 단일 위계화된다. 서구의 경우 제국들 간의 세력균형이 점차 상호 존중과 주권적 평등으로 귀결되었던 것과는 별개로 전국시대의 경우 다시 정통을 찾는 단일제국으로 회귀했다는 점이 특수하다.

다음으로 조공에 대해 살펴보면, 상서 요전 우공편에 나와있듯이 천하는 순우 임금, 혹은 주나라의 9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위의 고하와 지리적 원근에 따라 조공, 즉 朝覲과 貴物의 의무를 진다. 9복, 9기, 5복의 모든 제후들은 차등적으로 조공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주례에는 제후가 봄에 천자에게 행하는 조근을 조(朝), 여름에 알현하는 것을 종(宗), 가을에 알현하는 것을 근(動), 겨울에 알현하는 것을 우(遇)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충성관계를 유지하는 관례라고 할 수 있다.

공(貢)의 의미를 살펴보면 갑골문에서 貢은 工, 功과 함께 헌상의 뜻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貢은 典과 함께 貢典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典의 의미는 典冊의 뜻으로 제사 시에 신에

게 드리는 祝文이었다. 따라서 갑골문에 나타난 工, 功, 貢은 모두 같은 뜻으로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올리는 헌상물이었으며 貢典은 왕실의 제수품으로 헌상된 공물을 의미하였다. 공물은 단순히 물물 교환이 아니라 하나의 하늘에 제사 지내는 예식에 함께 참여하는 정치적 공물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은 왕실에 대한 헌공은 주 왕조 시대에도 계속되어 조공의 관습으로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禹)는 땅을 9주로 나누어 높은 산과 큰 강으로 경계를 정하였다. 기주 부세는 1등에 2등이 섞였다. 연주는 부세가 9등이었다. 공물은 철과 생사였다. 청주는 부세가 4등이었으며 공물은 소금과 갈포였으며 여러 종류의 해산물이었다. 서주 부세는 중등이었는데 공물은 5색의 흙과 5색의 땡털이었다. 양주 부세는 하의 상 등급이었고 공물은 금, 은, 동의 3가지 금속과 아름다운 옥, 돌, 대나무 등이었다. 형주 부세는 3등이었으며 공물은 새 깃, 소꼬리털, 상아 가죽이었다. 예주 부세는 상중의 상이었다. 공물은 철, 모시, 포, 옷감 등이었다. 양주는 부세는 하중의 하였으며 공물은 옥, 철, 은, 강철 등이었다. 용주 부세는 중하였고 공물은 옥과 돌이었다. (尙書注疏及補正, 夏書, 禹貢, 17쪽)

후복은 일년에 한번 조근하고 공물을 공납한다. 전복은 2년에 한번 조근하고 빈물을 공납한다. 남복은 3년에 한번 조근하고 기물(器物)을 공납한다. 채복은 4년에 한번 조근하고 복물(服物)을 공납한다. 위복은 5년에 한번 조근하고 임물(林物)을 공납한다. 요복은 6년에 한번 조근하고 화물(貨物)을 공납한다. (주례, 추관(秋官), 사구하(司寇下))

공(公) 후(候) . 백(伯) , 자(子) . 남(男)의 제후들은 은 각자 5등작(五等屬) 지위의 고하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서 천자에게 조근을 행하고 공물을 헌상하였다.(예기, 명당위)

여기서 복이란 “복은 천자를 받들어 복속한다”의 뜻으로 천자에 대한 복속을 의미하고 기는 분한(分限) , 한계(限界)의 뜻으로 지역 , 영지를 뜻하고 있다.

조공을 게을리 하는 것에 대한 벌칙도 명확하였다. 즉,

제후들이 조근을 한번 이행하지 않으면 작위가 강등 당하고 두 번 이행하지 않으면 영토가 삭감되었으며 세 번 이행하지 않으면 마침내 천자의 무력적 응징을 받았던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 천자에 제후들의 조근 이행은 ‘조근은 작위의 고하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朝以正班之義, 左傳注疏及補正, 莊公)

또한 조근의 예는 군신의 예를 밝히는 것이다.(朝觀之禮 所以明君臣之禮, 禮記注疏及補正, 經解)

제 나라 군주가 제후들의 군사를 거느리고 초 나라를 정벌하였다. 이에 초 군주 자사가 사신을 보내어 제후들의 군사에게 말하기를 무슨 이유냐고 묻자 관중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서 공물이 들어오지 않아 왕실의 제사에 제물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제사 술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주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굴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공물을 바치지 않았던 것은 우리 군주의 잘못이다 어찌 감히 바치지 않겠

는가.(춘추좌전 희공 4년)

IV. 중원왕조의 단일위계 하 전형적 조공관계

중원에서 시작된 조공관계는 점차 이민족으로까지 확장되어 중원이 단일한 위계를 성립하였을 때는 동심원적이고 중원 집중적인 조공관계가 만들어진다. 사대자소의 이념적 틀 속에서 조근과 공물을 바치고 책봉과 봉삭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성립된다. 한중 관계의 경우 조명 관계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 1에 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살펴보고, 여타 유형에 집중하는데, 유형 1의 조공개념을 보여주는 기사로 다음의 둘을 들고자 한다. 조선이 건국되고 정도전은 명나라에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표문을 들고 가는데 이를 보면 조명관계의 기본적 내용과 조공에 대한 생각이 담겨있다.

배신(陪臣) 조반(趙胖)이 남경에서 돌아와 예부(禮部)의 차자(筓子)를 가지고 와서 삼가 황제의 칙지(勅旨)를 받았는데, 고유(誥諭)하심이 간절하고 지극하셨습니다. 신은 온 나라 신민과 더불어 감격함을 이길 수 없는 것은 황제의 훈계가 친절하고 황제의 은혜가 넓고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몸을 어루만지면서 감격함을 느끼고 온 나라가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천지의 사이에는 본래부터 패망하고 흥하는 이치가 있는데, 소방(小邦)은 공민왕(恭愍王)이 후사(後嗣)가 없으면서부터 왕씨가 망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백성의 재화(災禍)는 날로 증가해 갔습니다. 우(禍)가 이미 요동(遼東)을 공격하는 일에 불화(不和)의 씨를 만들었으며, 요(瑤)도 또한 중국을 침범하는 일에 모의(謀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만 간사한 무리들이 내쫓김을 당한 것은 실로 황제의 덕택이 가해지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기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때문이오니, 이것이 어찌 신의 힘이 미친 것이겠습니까? 어찌 성감(聖鑑)께서 사정을 환하게 알아서 천한 사신의 말씀을 듣고 즉시 덕음(德音)이 갑자기 이르게 될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새겨서 은혜를 잊지 않겠으며, 쇠골분신(碎骨粉身)이 되어도 보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삼가 황제 폐하께서 구중궁궐(九重宮闕)에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으시면서도 만리 밖을 밝게 보시고, 《주역(周易)》의 먼 지방을 포용하는 도리를 본받고, 《예경(禮經)》의 먼 나라 사람을 회유(懷柔)하는 인덕(仁德)을 미루어, 마침내 자질구레한 자질로 하여금 봉강(封疆)을 지키는 데 조심하게 하시니, 신은 삼가 시종을 한결같이 하여, 더욱 성상을 섬기는 성심을 다하여 억만년(億萬年)이 되어도 항상 조공(朝貢)하고 축복하는 정성을 바치겠습니다.(태조 2권, 1년, 1392, 정도전이 명나라에 가지고 간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표문)

여기서 조선은 고려와 명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음을 고하고 조선의 건국에 명이 도움을 주었음을 상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향후 항상 조공하고 축복하는 정성을 바친다는 말로 양국 간의 외교적 관례를 확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하에서 보겠지만 고려말에 여명 관계는 어려움으로 점철되었고 이를 매듭짓는 의미에서 태조 당시의 조공 논의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태종 1년에 명의 사신이 조서를 가지고 방문하는데, 태종은 쿠데타로 집권하고 이후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의 정치적 지원을 갈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명 관계가 보다 전형적으로 자리잡고 수직적인 조공관계가 뿌리를 내린다고 볼 수 있다. 기사를

보면

중국의 바깥 육합(六合) 안에 무릇 땅덩이를 가진 나라는 반드시 인민(人民)이 있고, 인민이 있으면 반드시 임금이 있어 통치하는 것이다. 땅이 있는 나라는 대개 수로 헤아릴 수 없으나, 오직 시서(詩書)를 익히고 예의를 알아서, 능히 중국의 교화를 사모한 연후에야 중국에 조공(朝貢)하고, 후세에 일컫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나라가 있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혹은 대국(大國)을 섬기지 못하여 착하지 못한 것으로 사방에 알려지는 자가 또한 있다. 너희 조선은 기자(箕子)의 가르침을 익혀서, 본래 배우기를 좋아하고 의(義)를 사모하는 것으로 중국에 알려졌고, 우리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께서 만방(萬邦)을 무림(撫臨)하심으로부터 신(臣)이라 일컫고 조공(朝貢)을 받들어 흑시라도 게으르고 방자한 일이 없었고, 짐(朕)이 공경히 유조(遺詔)를 받아 제위(帝位)를 이음에 미쳐 곧 사신을 보내어 조상하고 하례하였는데, 그때에 짐이 양음(諒陰)에 있었으므로 살피어 회답하지 못하였다. 복(服)을 벗음에 미쳐서는 마침 북번(北蕃)의 종실(宗室)이 조용하지 못하여 전쟁(軍旅)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회수(懷綏)의 도(道)가 결여(缺如)되었었다. 그러나 너 권지 국사(權知國事) 이(李)는 능히 사대(事大)의 예(禮)를 두터이 하여 짐의 생일을 맞아 다시 공비(貢篚)를 닦았으니, 마음에 아름답게 여기어 지금 사신(使臣)을 보내서 건문(建文) 3년의 대통력(大統曆) 한 권과 문기(文綺)·사라(紗羅) 40필을 내려 지극한 뜻에 회답한다. 너는 천도를 순(順)히 받들고 번의(藩儀)를 공손히 지키어, 간사한 것에 현혹하지 말고, 거짓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충순(忠順)을 굳게 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길이 보전하여, 후세로 하여금 '인현(仁賢)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빛이 난다.'고 말하게 하면,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이에 조서(詔書)로 보이는 바이니, 마땅히 짐의 권회(眷懷)하는 바를 몸받으라.(태종 1권, 1년, 1401, 중국의 사신 육용과 임사영이 조서를 가지고 오다)

명은 기자조선의 맥락에서 조선을 보고 있으며, 태종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조공을 바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형적인 유형 1의 조공관계에서 한반도 왕조는 중원의 권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복속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V. 복수적 천하와 위계 속의 조공 제도

1. 고구려의 경우

앞에서 분류한 유형 1의 중원왕조의 단일한 위계 속의 조공제도는 조선 초기에 다양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중원의 왕조들은 예부를 중심으로 주변 왕조의 조근과 공물을 받아 일관된 천하질서를 유지하였다. 조선의 경우 성리학이 자리를 잡으면서 정체성에 기반한 문화적 사대와 이념적 사대가 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1의 조공제도가 동아시아 지역질서, 그리고 한중관계에서 압도적이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구려와 중원 왕조 간의 경우이다. 고구려의 경우 중원왕조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왕조의 기원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용례는 광개토왕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왕조의 기원에 관해서는

옛적 始祖 鄒牟王이 나라를 세웠는데 (王은) 北夫餘에서 태어났으며, 天帝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河伯(水神)의 따님이었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聖스러운 …… 이 있었다. 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부여의 奄利大水를 거쳐가게 되었다. 王이 나룻가에서 “나는 天帝의 아들이며 河伯의 따님을 어머니로 한 鄒牟王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 무리를 짓게 하여라”라고 하였다. 말이 끝나자마자 곧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떼가 물위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강물을 건너가서, 沸流谷 忽本 山上에 城을 쌓고 都邑을 세웠다. 왕이 王位에 싫증을 내니, (하늘님이) 黃龍을 보내어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였다. (이에) 王은 忽本 동쪽 언덕에서 龍의 머리를 디디고 서서 하늘로 올라갔다. 遺命을 이어받은 世子 儒留王은 道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大朱留王은 王業을 계승하여 발전시키었다.

여기서 고구려의 기원을 북부여에서 찾고 있으면 天帝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고구려 왕조와 하늘과의 직접적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독자적 천하질서를 표명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님과 자연의 보호를 받는 이미지 역시 독자적 천하관과 직결된다.

더 중요한 점은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에 대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광개토왕비가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百殘과 新羅는 옛적부터 (高句麗의) 屬民으로서 朝貢을 해왔다. 그런데 왜가 辛卯年(391)에 건너와 百殘을 破하고 新羅 …… 하여 臣民으로 삼았다. 永樂 6년(396) 丙申에 왕이 친히 군을 이끌고 百殘國을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3字 不明)하여 영팔성, 구모로성, 각모로성, 간저리성, □□성, 각미성, 모로성, 미사성, □사조성, 아단성, 고리성, □리성, 잡진성, 오리성, 구모성, 고모야라성, 혈□□□□성, □이야라성, 전성, 어리성, □□성, 두노성, 비□□리성, 미추성, 야리성, 태산한성, 소가성, 돈발성, □□□성, 루매성, 산나성, 나단성, 세성, 모루성, 우루성, 소회성, 연루성, 석지리성, 암문□성, 임성, □□□□□□리성, 취추성, □발성, 고모루성, 윤노성, 관노성, 삼양성, 증□성, □□노성, 구천성 …… 등을 攻取하고, 그 首都를 …… 하였다. 百殘이 義에 복종치 않고 감히 나와 싸우니 왕이 크게 노하여 아리수를 건너 精兵을 보내어 그 首都에 육박하였다. (百殘軍이 퇴각하니 ……) 곧 그 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百)殘主가 困逼해져, 男女生口 1천 명과 細布 천 필을 바치면서 왕에게 항복하고, 이제부터 영구히 고구려왕의 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태양은 (百殘主가 저지른) 앞의 잘못을 은혜로서 용서하고 뒤에 순종해온 그 정성을 기특히 여겼다. 이에 58성 700촌을 획득하고 百殘主의 아우와 대신 10인을 데리고 수도로 개선하였다. 영락 8년(398) 戊戌에 한 부대의 군사를 파견하여 신출자愼(息愼, 肅愼) 土谷을 觀察, 신출자 巡視하였으며 그 때에 (이 지역에 살던 저항적인) 莫□羅城 加太羅谷의 남녀 삼백여 인을 잡아왔다. 이 이후로 (신출자愼은 고구려 조정에) 朝貢을 하고 (그 내부의 일을) 보고하며 (고구려의) 命을 받았다.

광개토왕비에서 조공이라는 표현은 총 4회가 발견된다. 비문에 따르면 백제, 신라, 부여는 계속 고구려에 조공해 왔고, 백제, 신라, 동부여는 모두 속민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위에서

보듯이 백제의 아신왕은 고구려의 奴客이 되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 고구려-백제의 관계를 개념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원에서 기원한 봉건질서 하의 천자-제후와 구별되는 主·奴의 새로운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는 중원의 조공관계와 구별되는 독자적 질서를 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용현 2006).

永樂 9年(399) 己亥에 百殘이 맹서를 어기고 倭와 화통하였다. (이에)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다. 그때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倭人이 그 國境에 가득차 城池를 부수고 奴客으로 하여금 倭의 民으로 삼으려 하니 이에 왕께 歸依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太王이 은혜롭고 자애로워 신라왕의 충성을 가뜰서 여겨, 신라 사신을 보내면서 (고구려측의) 계책을 (알려주어) 돌아가서 고하게 하였다. 10년(400년) 庚子에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男居城을 거쳐 新羅城(國都)에 이르니, 그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官軍이 막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고구려군이)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任那加羅의 從拔城에 이르니 城이 곧 항복하였다. 安羅人戍兵…… 新羅城 □城 …… 하였고,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 (이하 77字 중 거의 대부분이 不明. 대체로 고구려군의 원정에 따른 任那加羅地域에서의 전투와 정세변동을 서술하였을 것이다). 옛적에는 신라 寐錦이 몸소 고구려에 와서 보고를 하며 聽命을 한 일이 없었는데,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代에 이르러 (이번의 원정으로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하니) 신라 매금이 …… 하여 (스스로 와서) 朝貢하였다.

위의 비문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고구려-신라의 관계 속에서 조공국인 신라가 왜의 침략을 받아 광개토왕이 이를 방어해주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신라 역시 고구려의 奴客의 신분이며, 한반도 왕조와 중원왕조의 조공관계와는 다른 책임, 권리관계를 보여준다. 고구려는 중원왕조들과 가장 먼저 조공관계를 수립했지만, 중원으로부터 군사적 피보호의 권리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신라에 대하여 군사적 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점을 볼 때, 고구려 중심의 한반도 내 천하질서는 중원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의 책봉을 받은 기록이 부재한 것으로 보아 봉건적 책봉관계가 한반도 왕조 간의 관계를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중원의 조공관계가 은, 주 왕조의 봉건제의 국제적 투사였듯이 한반도 내 고구려, 신라 및 백제의 관계는 고구려의 고대국가적 계급관계의 국제적 투사라고 보아야 할 듯 하다. 이러한 점에서 독자적으로 하늘과 관계를 맺는 고구려의 천하관을 엿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을 중원 왕조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의 조공에 관한 기사는 총 769건이 나온다. 이 중에서 고구려의 경우 가장 이른 기사는 고구려 124년 10월(음)로 후한에 조공하다라는 기사가 나온다. 冬十月遣使入漢朝貢. 이후 377년 11월(음) 백제를 정벌하고 전진에 조공하다 (377년 11월(음)) 十一月南伐百濟遣使入符秦朝貢 라는 기사가 나온다. 이후에 지속적인 조공기사가 간략하게 연도별로 나오고 있다.

사신을 후연에 보내 조공하다 (399년 01월(음))

북위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다 (425년 (음)) 九年春正月王遣使入燕朝貢

북위에 조공하니 북위가 책봉하다 (435년 06월(음)) 十三年遣使如魏貢

이후 북위에 조공한 기사가 수 십 차례 나온다. 장수왕 때에 44년부터 남송에 조공하다라는 기사가 나온다. (455년 (음))

43년(455)에 사신을 송(宋)에 들여보내 조공하였다

장수왕 70년인 남제에 조공하다 (481년 (음))

69년(481)에 사신을 남제(南齊)에 들여보내 조공하였다

이를 보면 고구려가 동시에 남과 북에 함께 조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양에 조공하다 (512년 03월(음)) 二十一年春三月遣使入梁朝貢

이후 500년대에 이르러, 동위, 진, 북제, 수, 주, 북위, 양, 당, 652년을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 이외에 중국정사조선전에 고구려의 조공 내용에 관한 상세한 기사도 찾아볼 수 있다.

少帝 景平 2년(A.D.424; 高句麗 長壽王 12) 에 [高]璉이 長史 馬婁 등을 宋의 왕궁으로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 이에 [宋의 황제는] 사신을 파견하여 그 수고를 致謝하였다. “황제는 고하오. 使持節 散騎常侍 都督營·平二州諸軍事 征東大將軍 高句驪王 樂浪公 그대는 왕위를 東方에서 이어 先人の 공적을 계승하였오. 순종하는 마음은 이미 뚜렷하고 충성 또한 드러나 遼河를 넘고 바다를 건너 貢物을 本朝에 바쳤오. 朕이 부덕한 몸으로 분에 넘치게 大統을 이어 받아 길이 先人の 자취를 생각함에 이르러서는 그 끼친 은택에 깊이 감사하는 바시오. 지금 謁者 朱邵伯과 副謁者 王邵子 등을 보내어 짐의 뜻을 전하고 수고로움을 致謝하오. 그대는 어진 정치를 힘쓰고 닦아 그 공을 길이 융성케 하고 王命을 본받아 짐의 뜻에 맞게 하오.” 중국정사조선전, 宋書

중원왕조는 고구려의 지위를 매우 높게 생각하는 한편, 고구려가 자신의 의지대로 말갈과 거란을 정복하고 스스로의 세력권을 강화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고구려가 중원에 사대를 하여 조공을 하였지만 사실상 독자적 천하를 도모하고 있었고, 조공은 이를 위한 외교적 수단이자 관례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魏]오랑개는 여러 나라의 사신 관저를 두었는데, 齊나라 사신의 관저를 제일 큰 규모로 하고 고구려는 그 다음가게 하였다(중국정사조선전, 남제서)

이 기사에 대응되는 기사로 『三國史記』長壽王 72年條에는 ‘冬十月 遣使入魏朝貢 時魏人謂我方強置諸國使邸 齊使第一 我使者次之’라 되어 있는데, 이는 魏가 南齊의 使臣을 高句麗의 사신과 거의 대등하게 예우함에 대하여 南齊의 사신이 항의하는 기사 내용과 더불어 당시

高句麗와 南·北朝간의 외교관계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비록 高句麗가 南·北朝로부터 被封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三國史記』의 경우 그 이유를 ‘時魏人謂我方強’이라 하였으며, 또한 北燕의 君主 馮弘의 來投時 그에 대한 北魏 및 宋의 송환요구를 거절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군사적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때, 그러한 외교적 관계는 곧 고구려의 강성함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 다른 기사들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

開皇 17년(A.D.597; 高句麗 嬰陽王 8)에 文帝가 璽書를 내려 힐책하기를, “[高句麗는] 매년 사신을 보내어 해마다 朝貢하면서 藩附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진정한 예절은 다하지 않고 있소. 靺鞨을 못견디게 괴롭히고 契丹도 禁固시켰소. 여러해 전에는 비밀리 재물을 뿌려 [우리 나라의] 小人들을 선동하여 사사로이 弩手들을 데리고 그대 나라로 도망해 가도록 하였소. 이 어찌 나쁜 짓을 하기 위하여 [弩手들을] 훔쳐간 것이 아니겠는가? [隋의] 사신을 빈 客館에 앉혀 놓고 삼엄하게 지켰으며, 또 자주 騎馬兵을 보내어 변방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하였고, 항상 의심하여 [隋나라의] 사정을 비밀리 염탐하곤 하였소. 간절히 曉諭하여 改過遷善할 기회를 주겠소.” 라고 하였다. 湯은 이 글을 받고 惶恐하여 表를 올려 사죄하려 하였지만, 마침 병으로 卒하였다(北史)

[開皇] 17년(A.D.597; 高句麗 嬰陽王) 에 文帝가 湯에게 璽書를 내려 말하였다. “朕이 天命을 받아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매, 王에게 바다 한구석을 맡겨서 조정의 교화를 선양하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저마다의 뜻을 이루게 하고자 하였오. 王은 해마다 使臣을 보내어 매년 朝貢을 바치며 藩附라고 일컫기는 하지만, 誠節을 다하지 않고 있소. 王이 남의 신하가 되었으면 모름지기 朕과 德을 같이 베풀어야 할터인데, 오히려 靺鞨을 못견디게 괴롭히고...契丹을 禁錮시켰소.

수 양제 23년(612) 봄 정월 임오(壬午)에 황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고구려 작은 무리들이 사리에 어둡고 공손하지 못하여, 발해(渤海) 사이에 모여 요동예맥의 경계를 거듭 잠식하였다. 비록 한(漢)과 위(魏)의 거듭된 토벌로 소굴이 잠시 기울었으나, 난리로 많이 막히자 종족이 또다시 모여들어 지난 시대에 넷물과 수풀을 이루고 씨를 뿌린 것이 번창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저 중화의 땅을 돌아보니 모두 오랑캐의 땅이 되었고, 세월이 오래되어 악이 쌓인 것이 가득하다. 하늘의 도는 음란한 자에게 화를 내리니 망할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도리를 어지럽히고 덕을 그르침이 헤아릴 수 없고, 간사함을 가리고 품는 것이 오히려 날로 부족하다. 조칙으로 내리는 엄명을 아직 직접 받은 적이 없으며, 조정에 알현하는 예절도 몸소 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도망하고 배반한 자들을 유혹하고 거두어들임이 실마리의 끝을 알 수 없고, 변방을 채우고 개척하여 경비초소를 괴롭히니, 관문의 닦다가 이로써 조용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이 때문에 폐업하게 되었다. (삼국사기, 수 양제가 고구려 총공격을 명하다, 612년 01월(음))

이상의 경우를 보면 명분적으로 중원왕조는 고구려의 조공을 받고 있었으나 고구려의 힘이 강성할 때 고구려는 물론 요동 이민족을 다스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여준다. 고

고려는 중원왕조, 특히 수나라를 위협할 만큼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만큼 사대를 하며 조공관계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2. 고려의 경우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고려 역시 통일 이후 국력이 강성할 때, 중원왕조로 하여금 복수적 천하관을 인정하도록 노력하였다. 고려는 북송에 조공을 하고 있었지만, 이는 두 제국 사이의 외교관계의 의미였지, 엄격한 사대의 이념틀 속에서의 조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구려가 스스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이승휴의 『帝王韻紀』地理紀(충렬왕 13, 1287)에 잘 나타나고 있다.

遼東에 따로 한 乾坤이 있으니 북두와 中朝가 구분되었네. 큰 파도 넘실넘실 삼면을 둘러쌌고 북쪽에 육지가 선처럼 이어졌네. 가운데 사방 천리 여기가 朝鮮인데 강산의 형승은 하늘에 이름을 떨쳤네. 밭 같고 우물 파는 예의 있는 국가이니 華인이 이름하여 小中華라 지었네.

여기서 이승휴는 고려가 스스로 소중화라고 하여 스스로의 습속을 보존하고 독자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말하기를,

중국(華夏)의 제도는 준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四方의 습속이 각기 土性を 따르므로 모두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중 禮樂, 詩書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中華)을 본받아 비루함을 고쳐야 할 것이나 그 나머지의 車馬, 衣服제도는 土風에 따라 사치와 검약을 적절하게 하여 반드시 꼭 같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승휴는 고려가 중국왕조와 구별되는 遼東의 天下라고 상정하고 있다. 여기서 遼東이 단순히 요하 동쪽의 지리적 범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정치적 공간으로서 중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풍습을 본받더라도 독자적인 문물과 예악을 지키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고려 초기 고려는 북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공을 하였지만,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칙자를 사용하였고, 북송의 사신도 고려에 내왕하여 이러한 관행을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고려가 팔관회 등의 행사를 통해 독자적 천하관을 표명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복수적 천하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용인한 것이다.

결국 중국 왕조의 이익을 심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군사적 세력균형이 압도적으로 중원왕조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왕조는 스스로 독자적인 천하관을 표명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이때의 조공은 복수적 천하관을 운용하는 외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VI. 경쟁적 지역질서 속의 한중관계와 조공

1. 고려 중후기의 외교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북방 이민족의 발흥과 지역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제시한 바 있다. 중원왕조가 군사적으로 취약해지면 주변에 대한 문화적 지배권도 따라서 약화되고 북서, 북동 지방의 유목 이민족을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향상시켜 중원을 공략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왕조는 중원 공략의 전초가 되거나, 혹은 변화하는 동맹 관계 속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처했다. 또는 몽골의 침략과 같이 중원왕조가 복속된 이후 직접 통치의 지배 하에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조공 관계 역시 다변하였는데 그 유형을 보면, 복수의 경쟁하는 왕조들이 중원과 동북지역에 등장한 경우, 조공을 통한 유연한 전략적 입지 확보의 전략이 사용되었다. 고려의 경우, 요, 금, 원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북송과 남송의 세력이 약화되고 그 와중에 고려는 다변하는 조공외교를 펼쳐 생존을 모색했다. 한편 몽골의 흥기한 이후 고려는 기존의 조공관계와는 다른 직접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데 이 역시 중원왕조 중심의 조공관계가 동아시아를 초시대적으로 관리했던 기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澶淵之盟(1004) 이후 송은 요와 대등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후 고려는 급변하는 지역정세에 휘말리게 된다. 송과 요는 상대방의 황제 존호를 표기하고 대등한 사절 파견제도를 수립하는 한편,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체계를 따로 수립하게 된다. 복수적 조공체계가 성립되면서 앞에서 논한 복수적 천하질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상호간의 외교적 의미의 조공과 더불어 고려와 같은 상대적 약소국의 복수적 조공 역시 불가피한 현상으로 등장한다. 송의 조공체계에는 高麗, 西夏, 交趾, 大理 및 于闐 등 서북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 占城 등 南海의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었다. 994년 이전 고려는 송의 正朔을 받들고 요에는 조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994년 고려는 요의 正朔을 받들기로 하였고, 1014년부터 1022년까지는 다시 송의 正朔을 받들었다. 고려는 建隆 3년(962) 처음으로 사신을 송에 파견하여 淳化 5년(994)까지 32년 동안 18차례 조공하였고, 1014년부터 1022년 사이에는 송에 6차례 조공을 하였다. 송의 正朔을 받드는 동안 고려국왕은 송의 책봉을 받았고 국왕이 교체될 때에는 주동적으로 송에 사신을 파견해 책봉을 청하였다 1022년부터 고려는 다시 요의 연호를 사용하고 요의 책봉을 받아 들였다. 이후 고려는 1116년에 요의 연호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요의 正朔을 받들었다. 고려는 북송으로부터 요로 조공관계를 이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本國은 大遼와 접해 있어서 이미 오래 전부터 爵命과 正朔을 받들어왔다. 그러므로 감히 上國의 命을 따를 수가 없다...冊立하는 명령과 正朔의 頒은 이미 일찍이 大遼로부터 받았으므로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실정에 맞는 조치임을 밝히고 북방에 대한 근심을 덜고자 하는 뜻을 보였다. (高麗史 卷13의 睿宗世家)

이후 1126년(天會 4년), 금이 발흥한 이후 고려는 금의 명령에 복종하고 양국 사이에는 조공제도가 성립되었다. 고려는 1126년부터 1211년에 이르기까지 금과 조공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양국 간 사신의 왕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完의 顏素蘭은 고려를 “대대로 藩國으로 있으면서 신하된 도리를 그르친 적이 없었다”고 평가하기에 이른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 고려가 급변하는 지역정세 속에서 금과 송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는 송이 금을 공격하기 위한 출병요청이 왔을 때, 자신의 이익을 내세워 이를 완곡히 거

절하고 있다.

변경 사람의 말을 듣건대 금이 거란을 패망시킨 다음 드디어 宋의 영토를 침입하였는데 宋의 황제가 방금 즉위한 때라 하여 그들을 섬멸할 생각이 없어 和親하자는 제의를 들어 주었다고 하니 중국처럼 큰 나라도 이렇게 하였거든 하물며 고립되어 있는 弱小한 우리나라가 장차 누구를 믿겠는가...우리나라는 본래 富强하지 못하는데다가 근래에 災變을 겪어서 저축하였던 것이 다 타버렸으니 군량을 마련하고 군기를 수선해야 한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정비된 뒤에야 출동할 수 있을 것이요 원래에 갑자기 도모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군다나 적의 세력이 흉악하고 강대하니 경솔하게 부딪쳐서는 안될 것이요 적측 지형이 준험하니 깊이 들어가긴들 어찌 용의하겠는가? 그러나 당신의 사절이 직접 왔으니 회피할 도리가 없다. 貴國 軍事가 적을 제압하기를 기다려서 다소나마 위력을 돕겠으니 당신이 나의 간곡한 뜻을 이해하기 바랄 뿐이다.(仁宗 4年, 7월, 왕이 송 사신에게 협공을 거절하는 뜻을 전하다, 고려사 권 15)

이후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이전의 관계와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닌다. 기존의 조공관계로 볼 수 없는 많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1219년 형제맹약의 체결로 시작되었지만, 1231년에 전쟁이라는 무력 대결을 거치면서 직접 지배에 해당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충렬왕으로부터 공민왕에 이르는 시기까지 8명의 몽골 공주들이 고려왕에게 출가함으로써, 부마관계가 성립되었고 고려왕은 몽골 황금씨족의 일원이 되었다. 대원제국 소멸 이후에는 기황후의 아들인 아유시리다라 카안에 의해 사돈관계로 연결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기존의 중원왕조와의 조공관계와는 차별성을 보이는데, 통혼 이외에도 고려왕이 원제국의 칸에게 親朝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는 이전의 조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또한 조공에 대해 중원왕조가 回賜를 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몽골의 경우 회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전쟁 → 출륙친조요구 → 친조 → 출륙 → 부마국왕로 이어지면 새로운 의미의 조공과 책봉 관계를 수립한다. 조공은 전체적인 지배, 복속 관계의 맥락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주장하는 바처럼 일원적인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

2. 고려 말 여명관계

명나라는 원이 멸망하고 수립되었지만 고려말 여명 관계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명의 군사적 우위가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고려는 복원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명은 그러한 고려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새로운 조공관계 수립을 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명이 시작부터 전형적인 일원적 조공관계를 수립하지 못한 것은 확실하며 스스로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립할 때까지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명은 새로운 왕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고려와 조공책봉관계를 맺고자 하였고, 고려 역시 원의 압력과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신흥강국인 명과 관계를 도모했다. 공민왕 19년 7월을 전후하여 여명 간의 조공관계가 수립되는데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고려의 사절이 명에게 적절한 절차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명도 책봉을 미루고 있었으며, 사절을 파견하지도 않았다. 또한 고려도 한동안 洪武年號를 사용하지 않았다. 조공관계 수립까지의 난관을 보인 기사를 살펴보면,

이때의 주청사는 “수량을 삭감해 줄 것”을 주청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이었다. 그런데 이들 사행이 요동에 도착하니 “고려에서 말은 5천필 다 가져왔는데, 고려의 貢物중 金銀은 수량이 부족하다”며 “은 3 백량에 말 1 필, 금 5 십량에 말 1 필의 비례로 代納케 하라”는 지시만 받고 요동에 서 되 돌아왔다.(고려사 권 135, 열전 48, 신우 3, 10년 5월 조)

고려는 정상적 조공관계를 수립할 때 까지, 우왕 4년 3월부터 우왕 11년 4월까지 명측은 遺明使節을 억류시키고, 과도한 朝貢物을 요구했다. 또한 공민왕의 시호와 우왕의 책봉을 해주지 않았다. 반대로 고려는 한편으로는 北元과 통교하면서 책봉을 받아내고 또 한편으로는 명의 과도한 공물요구에 응하여 수천필의 軍馬를 명에 정탈 당하면서까지 명과의 관계재개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했었다. 결국 고려는 명으로부터 冊封을 받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군사적 손실을 입어야 했다.

3. 명청 교체기

마지막으로 명청교체기의 조선 외교의 어려움은 광해군 및 인조대 조선의 외교사정으로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다. 후금의 등장 이후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치 고자 하였으나 인조반정으로 실각한다. 아래의 칙서는 명이 인조에게 보낸 것으로 후금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명에 대한 조공을 유지한 것에 대한 치하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조선은 적절한 조공관계의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 채 결국 패전의 굴욕을 맞이한다.

등극사(登極使) 한여직(韓汝潑), 민성징(閔聖徵)이 중국에서 돌아왔다. 상이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칙서를 맞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제는 조선 국왕에게 칙서를 내려 유시하노라. 짐은 하늘이 내려준 아름다운 복을 공손히 받고 선조의 공렬을 힘써 계승하여, 백성을 보살피고 정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경건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법도가 일신되고 기강이 크게 진작되어 사해 안이 모두 광명천지가 되었다. 돌아보건대, 그대 나라는 충정(忠貞)을 독실히 바쳐 대대로 병한(屏翰)이 되었다. 이에 짐이 처음 대위(大位)에 올라 칙서를 반포하여 그대의 공로를 표창했던 것이다. 근자에 오랑개들이 세력을 떨쳐 연거푸 그대 나라를 침략하였는데, 그대는 괴롭다 하여 절조를 저버리지 않았고, 위험하다 하여 뜻을 꺾지 않았다. 그리하여 험한 뱃길로 사신을 계속 파견하여, 조공하고 진하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대의 변함없는 정성이 가상하고 충순함이 한층 드러났으니, 큰 은전을 베풀어 다른 나라의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 이에 특별히 문기(文綺)와 백금(白金)을 하사하여 짐의 각별한 관심을 표하려 하니, 왕은 끝까지 짐의 총명(寵命)을 잘 받들어 변방을 튼튼하게 지키고 힘과 마음을 합해 저 흉악한 오랑개들을 쳐부수라. 그렇게 되면 위대한 공적이 한 시대의 으뜸이 되고 요좌(遼左)가 평정될 것이며, 큰 공훈은 천고에 빛나고 짐의 천명이 빛나 동토(東土)도 영원히 진정될 것이다. 그대는 공경히 받들라.(등극사 한여직, 민성징이 중국에서 돌아와 칙서를 전하다, 인조 19권, 6년, 1628, 11월 12일)

이후 두 차례의 호란을 거치면서 결국 인조는 청나라에 굴복하게 된다. 조청관계는 유형

1 중에서 청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은 군사력에 의해 청에 굴복하지만 내심 복벌을 내세우며 전략적 관점에서 조공을 유지하게 된다.

VII. 결론

본고는 동아시아 전통질서 속에서 조공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지역질서의 배경 속에서 개념사적 추적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조공은 사대자소라는 동아시아 특유의 질서를 구체적으로 유지시킨 실천, 관례, 제도이다. 조는 정치적 의례이며 공은 경제적, 물질적 봉정 행위이다. 그러나 공 역시 제사물에서 파생된 것으로 상징적,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공은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강력한 중원왕조 중심의 단일 위계상태였는지, 혹은 복수의 위계/천하 간 공존의 시기였는지, 군사력에 기초한 왕조 간 경쟁과 전쟁 상태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조공은 단일 위계 속에서 정체성과 문화에 기반하여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맺는 행위이기도 했고, 복수 위계 속에서는 동등한 외교적 행위이기도 했으며, 경쟁과 전쟁 상태에서는 전략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민한 대처 방법이기도 했다.

한중 관계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 변화되었다. 중원의 군사적 패권, 그리고 이민족과의 상대적인 세력균형에 따라 한중 관계의 환경이 달라졌고, 양자관계는 동아시아 구조에 의해 변형되었다. 한반도 왕조들은 때로는 안정적인 대중 관계를 맺는가 하면, 때로는 중원왕조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더 나아가 전쟁을 벌일 만큼 독립적인 외교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공은 매우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조공이 사대관계를 유지하는 일방적이고 보편적인 행위였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조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 전통 질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윤성환, “고구려 영류왕의 對唐 조공책봉관계 수립 정책의 의미,” 『동북아역사논총』 39호, 2012
- 윤영인(피터 윤),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연구』, 45, 3(2002).
- 이용현,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고구려의 동아시아 인식,” 『고구려연구』 22(2006)
- 이춘식, “유학 경전 속의 9주, 9복, 9기, 5복과 봉건적 세계국가상,” 『중국학 논총』 16집 (2003), pp. 1-28
- 전재성, “사대의 개념사적 연구,” 하영선 편,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개념 형성사 2』 (서울: 창비, 2012)
- Fairbank, John K. “A Preliminary Framework.” Fairbank, John 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 *Trade and Diplomacy on the China Coast: The Opening of the Treaty Ports, 1842-1854*(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3)

- ."Tributary Trade and China's Relations with the West." *The Far Eastern Quarterly* 1, 2(1942).
- Fairbank, John K. and S. Y. Teng. "On the Ch'ing Tributary System."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6, 2 (1941).
- Hevia, James L. *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5)
- ."Tribute, Asymmetry, and Imperial Formations: Rethinking Relations of Power in East Asia."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16, 1-2 (Spring-Summer 2009).
- Kang, David C. *East Asia Before the West: Five Centuries of Trade and Tribute*(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 Womack, Brantly. "Asymmetry and China's Tributary System."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5 (2012).
- . *China and Vietnam: The Politics of Asymmetry*(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Zhang, Feng.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Broadening the Conceptual Horizon of Historical East Asian Politic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2 (2009).
- Zhang, Yongjin. "System, Empire and State in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Cox, Michael. et. al. eds. *Empires, Systems and States: Great Transforma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